

단재 신채호 소설의 고아 인물 연구

김현주*

|| 차례 ||

1. 머리말
2. 부성 콤플렉스와 권력에 대한 집착
3. 구원과 파멸의 세계로 구성되는 여성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신채호 소설에 형상화돼 있는 고아인물들의 정신적인 상처와 이것이 전도되어 나타나는 자기 분열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결핍된 부분들을 보상받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들이 보여주는 자이분열, 자의식의 과잉, 나르시시즘적인 태도들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기제들이라 볼 수 있다.

궁예와 을진이는 권력에 집착함으로써 부성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상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폭력적이고 망상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등, 극단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부성 결핍으로 인해 어머니와 동일시를 이루는 상상계에 고착화된 인물들인 것이다. 류화와 엽분은 이러한 남성들의 왜곡된 욕망이 투영돼 있는 인물들로서 구원과 파멸의 이중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들 고아들이 처한 현실은 불운한 가족사를 경험하고, 국권 상실 이후에는 사회적 고아로 살아야했던 신채호의 현실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이다. 고아 인물 형상화는 곧 작가의 삶의 문제가 각색돼 나온 것으로서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식민지 망명 지식인의 자기 치유 방식이었던 것이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책 객원 교수

주제어 : 고아, 부성 콤플렉스, 권력 추구, 욕망, 자의식, 구원과 피멸, 이중적 시선

1. 머리말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에 대한 연구는 문학, 역사, 교육,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구 성과 또한 상당히 축적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다양한 담론 속에서 화려하게 재해석되고 있지만 아직 작품 자체의 내적 흐름에 대한 고찰이나 창작 동인을 밝히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특히 신채호가 자신의 삶 자체를 반영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문학 행보를 이어갔던 만큼 그의 문학, 특히 소설 속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곧 작가 정신을 규명하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신채호는 일찍이 논설을 통해 “其國에 世界와 交渉할 英雄이 有하야야 世界와 奮鬪하리니 英웅이 無하고야 其國이 國됨을 豈得하리오.”¹⁾라며 국가 건설에 영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최도통전> 등의 역사전기소설에서도 강인한 구국의 영웅을 형상화하며 새로운 국민적 모델을 창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외의 소설들에서는 반(反)영웅적인 인물, 역사의 주변 인물 등, 개인적, 사회적 자아로서 결핍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작품 자체도 미완으로 끝나고 있어 인물 형상화나 시점 처리, 구성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²⁾

1) 신채호, <英雄과 世界>,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622쪽. 차후, 자료 인용 시 『전집』이라는 말로 통일하고 권수만 밝히도록 한다.

2) 홍기문은 “家親의 이야기로 드르면 申丹齋는 자기가 일껏 著作을 해가다가 말고 갑자기 업세 버리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홍기문, <申丹齋學說의 批判>, 『전집』 9권, 266쪽.)라며 신채호의 유별난 집필 습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기대어 보면 신채호 스스로 원고를 없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고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돌출된 행동과 불안의 동인이 무엇인가를 찾던 중, 이들 상당수가 고아(孤兒)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³⁾ 지금까지 발굴된 신채호의 소설은 모두 15편이다.⁴⁾ 이 중, 고아가 등장하는 예는 <익모초>(益母草), <류화전>(柳花傳), <일목대왕의 철추>(一目大王의 鐵椎), <백세노승의 미인담>(百歲老僧의 美人談), <일이승>(一耳僧), <꿈하늘>⁵⁾ 등 총 6편으로 전체 소설 편수에 비하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채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상당한 서사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아 인물은 소설 창작에 주요한 테마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

이처럼 고아 인물을 형상화한 것은 작가 자신의 유년기 체험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채호는 고아로 자라지는 않았으나 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후, 아버지를 대신하던 형 재호(在浩)마저

3) 고아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이다.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012. 12. 7.) 본고에서도 이에 준하여 고아 인물들을 분류하였다. 또한 관례(冠禮)를 치르지 않은 스무 살 이전의 인물들을 아이로 보았다.

4) 전체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익모초>,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최도통전>, <꿈하늘>, <백세노승의 미인담>, <일목대왕의 철추>, <일이승>, <류화전>, <리팔>, <박상희>, <○○○ 부원군으로 견자>, <철마 코를 내리치다>, <구미호와 오제>, <용과 용의 대격전>

5) 이 중, 본고에서는 <일목대왕의 철추>, <백세노승의 미인담>, <류화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익모초>(《가뎡잡지》, 1908.)의 경우는 3월, 7월분만 발굴돼 있어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포착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고아인 최완길이 배움을 통해 애국심을 깨닫고, 고아의식을 극복한다는 내용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꿈하늘>의 경우도 한놈이 자기 부정, 구도의 방식으로 고아의식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고자 한다.

6) 지금까지 고아 인물을 따로 분류하여 분석한 예는 없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민족주의자 신채호에 초점을 두고 작가의식을 잘 실현하고 있는 인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백세노승의 미인담>과 <일이승>의 중심인물은 노승과 정을진임에도 자주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엽분과 일이승이 중심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각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작품 분석 시 밝히도록 한다.

있었다.⁷⁾ 이러한 불운한 가족사와 식민지의 망명 지식인이라는 사회적 고
아로서의 위치는 소설의 인물 구상에 깊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신채호는 신숙주(申叔舟)의 18세손으로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
났으나 가세가 기울어 궁죽으로 연명하며 유년기를 보냈다.⁸⁾ 그러나 평생
을 가난으로 고통 받았음에도 신채호는 소설에서 가난을 전면에서 부각하여
형상화하지는 않는다. 고아들은 자의식의 과잉과 소외의 극단 사이에서 자
아분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가난한 천
재로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자존감을 지켜나가야 했던 신채호의 삶과
도 닮아 있는 것이다. 가난 체험은 그를 더더욱 정신적 세계에 천착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그가 정통 유학을 공부하였음에도 보수적인 유림(儒林)
의 세계로 흐르지 않고 개혁적이고 저항적인 식민지 지식인이 될 수 있었
던 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아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들 소설들은 <일이승> 외에 모두 미완성 작

7) 형이 언제 요절하였는지, 그때 신채호의 나이가 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 기본 자료로 삼고 있는 『전집』 9권에서는 1899년에 형이 요절하였
으며 당시 신채호가 20세, 형이 27세였다고 한다.(427쪽.) 그러나 같은 책에 실린 신영
우의 글을 보면 형이 20세에 요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신영우, <朝鮮의 歷史大家
丹齋 獄中會見記>, 249쪽.) 신용하는 1892년에 형이 요절하였으며 당시 신채호가
12세, 형이 20세였다고 한다.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음. 신용하, 『증보 신채호의 사회
사상연구』, 남창출판, 2004, 17쪽.) 김병민도 이와 같이 본다. (김병민, 『신채호 문학연
구』, 아침, 1989, 174쪽.) 또, 『단재신채호전집』 하에서는 신채호는 18세, 형이 20세였
다고 밝히고 있으며(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1995, 496쪽.) 최옥산은
당시 신채호가 13세였다고 하고 있다. (최옥산,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
학위논문, 2003, 12쪽.) 신채호의 시 <우리 형님 돌아 가신 날에>을 보면 “선친께서
끼친 혈육 우리 형제 두 사람, 기구한 이십 년에 고난 겪기 그 일만고” (『전집』 7권,
224쪽.)라고 읊고 있다. “기구한 이십 년”이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형님이 스무 살에
요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밝히고 있어 당시 형과 신채
호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8) 최옥산은 신채호의 집안은 그의 직계 5대조 斗模 때부터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하였
는데 이는 이인좌의 난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최옥산, 위의 논문, 11~12쪽 참조.

이라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⁹⁾ 소설의 초벌 단계를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미완성 작품들은 작가의 무의식적 작품 창작 동인을 찾는 데 주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의식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역동적 본질이다. 이들 억압된 상처나 공포, 범죄욕망, 풀리지 않는 갈등 등은 변장과 왜곡, 자기 과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실체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무의식에 억압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성장하여서도 어린 시절에 못다 채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든다. 특히 가족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 왔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상 행동은 결정된다. 이들 행동의 근저에는 항상 가족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다.”¹⁰⁾ 따라서 신채호 소설의 인물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 그들의 가족사를 짚어 보는 것은 소설의 갈등 구조와 인물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¹¹⁾

9) 신채호 소설 가운데 미완성은 모두 8편(<익모초>, <최도통전>, <꿈하늘>, <백세노승의 미인담>, <일목대왕의 철추>, <류화전>, <리팔>, <○○○ 부원군으로 건자>)으로 이 중 5편에서 고아 인물이 등장한다.

10) 한승욱, 『<무정>에 나타난 ‘친밀감의 거부’ 방어기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35호, 2007, 106쪽.

11) 신채호 소설 중에서 가정이 주요 테마로 등장하는 예는 드물다. <익모초>와 <백세노승의 미인담>에서 가정이 배경으로 등장하긴 하나 가족 관계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백세노승의 미인담>의 경우, 유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과 고아인 엽분의 관계만 언급돼 있을 뿐, 정작 아들인 노승과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집안의 중심인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무지한 고아들이 의식 있는 지식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소설에서는 온전한 가정의 형태나 부모형제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려진다. 이는 신채호의 성장 과정과도 관련성이 있다. 신채호는 아버지를 여윈 집안에서 할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당대의 개화지식인으로 성장한다. 또한 “丹齋는 決코 家庭의 人은 안이다. 放浪生活을 繼續하야 家庭生活과는 아조 因緣이 적은 사람이었다.”라는 신영우(앞의 글, 248쪽.)의 말에서도 가정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작가의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신채호 소설에 등장하는 고아 인물들이 보여주는 욕망의 근원이 무엇이며, 이들에게 부성(父性)과 여성성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채호 소설의 창작 동인을 탐구하고 소설의 작품성을 제고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부성 콤플렉스와 권력에 대한 집착

신채호 소설에서 부성 콤플렉스는 인물 구성과 사건 전개 of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일목대왕의 첩추>에 등장하는 궁예와 <일이승>의 정을진은 부성 부재(父性 不在)를 경험한다. 이러한 결핍은 그들에게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낳고, 욕망은 또 다른 욕망들로 옮겨 가며 현실에 대한 왜곡된 상을 만들어낸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은 채 결핍의 상태로 남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은 폭력적이고 자기애(自己愛)적인 퇴행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우선 궁예는 권력에 집착하는 폭력적인 왕이다.¹²⁾ 그는 부처도 공자도

12) 궁예에 대해서 김병민은 “포악한 전제군주로서의 궁예의 반인민적 본질을 신랄하게 폭로규탄하면서도 때론 그를 불교와 유교의 신성한 파괴자로 때론 강 씨의 견책 앞에서 스스로 참회하는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인물의 성격발전논리와도 맞지 않게 형상하는 점도 없지 않다.” “역사적 사실과 생활세부에 대한 이런 비진실성은 성격형상의 미학적 의미를 어느 정도 저락시키기도 하였다.”고 본다. (김병민, 앞의 책, 137~138쪽.)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궁예를 민족주의, 자주주의를 고취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성현자, 「역사적 인물의 허구적 서사구조(1) -신채호의 <일목대왕의 첩퇴>, <박상회>, <이팔>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 21, 1996, 12. 이영신, 「단재 신채호의 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9. 양진오, 「영웅의 호출과 민족의 상상 -망명 이후 신채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38호, 2008, 8. 김희주, 「신채호 서사의 희극성 연구 -<일목대왕의 鐵椎>,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 연구』 제44호, 2010, 8.) 이와 달리 김현주는 궁예를 부정적인 반(反)영웅으로 보고, 이는 폭력적인 권력을 경계하는 신채호의 아나키즘 성격을

모두 부정하고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미륵불이라 칭한다.

“나(대왕이 자기를 가리킨 대명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미륵불(彌勒佛)이다. 미륵불이 내려온 뒤에는 아미타불도 쓸대없고 석가여래도 쓸대없고 공자나 맹자도 쓸대없다. 이 세상은 미륵불의 세상이니 다른 부처나 다른 성인을 위하는 자는 미륵불의 죄인이다. 옛적에 부처에게 득죄하면 죽어서 디옥에 간다 하얏지만 오늘에 미륵불에게 득죄하면 살아서 철추를 맞는다. <…> 미륵불은 온세상 사람들의 하는 일만 알 뿐이 안이라 무슨 마음을 가지는지도 다 안다. 너희들이 만일 죄될 마음을 가지면 미륵불이 반듯이 죄를 주고야 만다.”(584~585쪽.)¹³⁾

궁예는 자신을 신격화하며 백성들을 규율하려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가 심술로 눈이 멀었다며 조롱하는가 하면, 그를 진시황에 빗대어 출생부터 석연찮은 왕이라며 궁예의 신성성을 강등시킨다.

“진시황이 성이 영가이지만 실속은 러불위의 아들이요. 성이 려가이더니 지금에 대왕은 성이 궁가라 하지만 실속은 김가요, 신라 현안왕의 아들이지 <…> 요전에 대왕이 어니 절예를 지나다가 그 벽에 걸닌 신라 현안왕의 화상을 보고 대왕이 칼을 빼여 목을 티며 신라가 당나라 군사를 쓰어 들이여 고구려를 망쳤스니 이런 큰 죄가 어대 잇느냐? 내가 반듯이 그 원수를 갑호주리라고 말하얏단 소문을 너희도 들어갓지 <…> 흥. 고구려를 위하여 복수한다는 말은 짬소리지. 실은 자기 아버지를 미워서 한 일이지. <…> 대왕은 원래 신라 현안왕의 첩의 아들인데 오월 오일에 남으로 사주장이가 현안왕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가 오월 오일에 낫스니 장래의 반듯이 나라의 해가 되리이다.』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김현주,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 -아나키즘 사상의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105집, 2009, 9.

13) 본고에서는 『전집』 7권 문학 편에 실린 소설 작품들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차후, 작품 인용 시 쪽수만 표시하도록 한다.

한 대 헌안왕이 그 말을 밋고 죽이라 하여 사신을 보내야 놉흔 루 마루 위에서 그 아이를 들어 그 알로 던지더니 유모가 불상히 녀이여 던질 쪼에 밋다가 거룻 손가락으로 그 눈을 썰너 떨니고 안고 달어나와 길어낸 것이 신귀를 밋나 왕 께지 되얏다. 자기는 헌안왕의 아들이란 말을 안이하나 그 먼 눈이 증거를 대는 데야 엇지하랴. 아모리 헌안왕이 대왕을 버리엇지만 그래도 헌안왕은 대왕의 아버가 안이나? 아비화상의 목을 치는 자식이 아비의 목을 치는 자식이나 한가지니 이 갓흔 불효자가 엇지 오래 대왕의 자리를 가지랴.”(587쪽.)

궁예는 백성들의 말을 흠쳐 듣고는 “남을 흘라면 못 맨들어 낼 소리가 업는 법이다.”(587쪽.)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소문을 반박할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자신을 비방한 자들을 철추로 내리쳐 응징한다.¹⁴⁾ 그의 폭력성은 자신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지 못한 자의 감정적인 대응 방식으로 비춰진다. 말하자면 궁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로 출생 콤플렉스, 부성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인 것이다.

“부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환자는 자신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환자가 원형적 부성상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⁵⁾ 궁예가 스스로

14) 서사의 뒷부분에서는 궁예를 장보고의 후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사가 미완으로 끝남으로써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궁가가 신라로 이사한 뒤에 궁복이란 이가 중국에 궁가가 없는 까닭에 행세하기 아조 불편함으로 활궁에 긴 장(長)을 보태여 장가라 하고 중국에 「ㄱ」발음이 업는 까닭에 복을 「보고」(保辜)라 하더니 고국에 돌아와 전장에 궁을 세워 「청해진대사」란 벼살을 하다가 간신의 시기에 물니어 죽고 그 자손이 사방으로 허터져 혹은 궁가의 본성을 가지고 혹은 장가의 변성을 가지니 일목대왕은 그 본성을 보전한 송악군 궁가의 자손이더라.”(<일목대왕의 철추>, 601쪽.)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는 신라 47대 헌안왕의 아들, 혹은 48대 경문왕의 아들이라 한다. 김부식, 『삼국사기』하,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2009, 484쪽.

15) 박신,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분석심리학회, 『심성연구』 19, 2004, 58쪽.

를 미리라 칭하는 것 역시 자신을 영웅, 구원자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걸림된 부성성을 획득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궁예의 남근을 소유하려는 욕망, 누군가의 남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미리’라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환유되어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궁예는 부성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상계에 고착된 인물인 것이다.¹⁶⁾ “라깡에 의하면 아이는 상상의 단계에서 자신을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인 남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욕망과 어머니의 욕망이 일치되는 기쁨을 맛본다. 그러나 곧 아버지 법에 의지하고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상징계에 진입하게 된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법적이고 징벌적인 권위의 상징이다. 그것은 상징계 내에서는 상징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자아가 정상적인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자신이 아버지의 위치에 자리하는 어머니의 남근적인 존재가 되는 방식으로 상징계에 진입하게 된다.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것은 동일시할 대상을 잃게 되면서 자아가 상상계에 머물게 되는 것을 뜻한다.”¹⁷⁾

궁예는 현안왕의 화상(畵像)을 칼로 그음으로써 아버지의 세계에 상징적인 살해를 가한다. 이는 스스로가 아버지 자리에 위치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궁예가 병적으로 자신을 신성화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데는 이러한 불온, 금기와 저주를 부정하고 싶은, 즉 아버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궁예에게 아버지라는

16) 라깡은 인간의 정신 영역을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는 세 단계로 설정한다. 상상계, 즉 거울 단계에서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총체적이고도 완전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는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타자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구별하지 못한다.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 상상계요, 그 대상을 얻는 순간이 상징계요, 여전히 욕망이 남아 그 다음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게 실재계이다. 자크 라깡, 『욕망 이론』, 권택영 역음, 문예출판사, 1994, 15~19쪽 참조.

17) 펄킵 보위, 『라깡』, 이종인 역, 시공사, 1999, 92~95, 160~165쪽 참조.

존재는 욕망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인 것이다.

궁예가 금기로서의 아버지 자리에 위치하고자 하는 심리는 바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율을 강조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나를 미륵불이 안이라 하면 가장 큰 죄니 이는 이 세상에서 철추의 벌을 바들 뿐 안이라 죽어서도 철추의 벌을 바들 것이오, 나를 미륵불인 줄 알고 또 복종할지도 혹 계오른 태도를 가져도 철추를 바들 것이오, 조석으로 미륵불 있는 곳을 절을 안하여도 철추를 바들 것이오, 미륵불을 밋지 안는 사람을 보고도 이를 곳치도록 경계하지도 못하고 발각하여 죽이지도 못하면 철추를 바들 것이오, 미륵불에게 세랍을 바치지 안하여도 철추를 바들 것이오, 미륵불이 지은 궁예대왕경을 밋지 안하여도 철추를 바들 것이오, 다른 불경이나 유교의 글을 읽어도 철추를 바들 것이다, 복을 바드라면 나를 미륵불로 잘 미더 나 식히는 대로 하고 죄를 짓지 안하면 곧 복을 바들 것이다.”(584~585쪽, 밑줄은 인용자.)

궁예는 율법과 규율의 왕이다. “말씀과 법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은 남성성의 힘”¹⁸⁾으로서 엄격한 규율들은 곧 궁예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이것의 결정체가 바로 궁예대왕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유교와 불교에 세뇌된 백성들을 계도한다는 명분으로 궁예대왕경을 지은 후,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읽기를 강요한다. 그의 말이 곧 법이자 종교이다. 이로써 그는 정신적인 부성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궁예대왕경이 정신적인 부성성을 의미한다면 그가 들고 다니는 철추는 육체적인 부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궁예는 철추를 통해 절대 권력자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한 부성성을 획득하려 한다. 그가 권력에 집착하며 처벌의

18) 박신, 앞의 논문, 40쪽.

도구로 휘두르는 철추는 곧 남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부성 경험에서 오는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분열의식을 권력으로써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국 방기(放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이되어 언젠가 백성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낳게 한 것이다. 그가 저녁이면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데서도 그의 망상적인 불안 심리를 엿볼 수 있다.¹⁹⁾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이 궁예의 현재 삶을 강하게 지배하면서 그를 점점 더 도착적이고 폭력적인 왕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욕구불만은 공격적이고 신경증적인 성격이 되도록 만들고, 이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그의 고집, 그리고 백성들의 조롱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 등은 부성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자의식의 과잉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철추는 궁예 스스로를 강하게 포장하여 방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심리적 방어기제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상징적인 힘을 구현할 수 있는 기표로 작용한다.²⁰⁾ 이러한 궁예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상징계에 진입

19) “망상적 성격의 특징은 수줍고, 과민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된다. 편견이 많아지고 남과의 이야기에서는 도전적이고, 유우머를 이해 못 하고, 타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자기를 에워싸듯 자신만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비꼬는 태도를 보인다. 힘에 겨운 목적을 향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며, 자기 계획을 비판하는 소리에는 대단히 흥분하며, 참지 못하는 것 등이 망상적 성격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다.” 최상운, 『한국의 자의식 소설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1989, 114쪽.

20) “생물학적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사라져도 그의 가정관계와 사회관계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시니피앙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체한다. 이때의 시니피앙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조직, 어느 한 이름, 몇 마디 말, 하나의 물체로서 요컨대 아버지의 상징적 힘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

하지 못하고 상상계적 자기애에 빠져 있는, 분열적인 자아 상태를 보여주
는 것이다. 궁예는 부성 부재가 가져온 개인적인 결핍증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기애와 자부심, 그리고 동시에 자기 증오라는 양극단의 감정
을 동시에 지닌 채 상상계에 고착돼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가
백성들과 벌이는 싸움은 곧 부성 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버지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일이승>²¹⁾에 등장하는 정을진 역시 부성 콤플렉스를 지닌 자로 권력
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또한 궁예가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 출신인 것
과 마찬가지로 을진 역시도 서자이다.²²⁾ 그러나 궁예가 어린 시절 버림받
은 기억 때문에 아버지를 거부하려고 한다면 을진은 끊임없이 죽은 아버지
를 대체할 새로운 부성상을 찾아 헤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변 석왕사에서 불목장으로 있는 정을진은 밤마다 “하느님이시여, 정
을진이 조선 임금에 되게 하여 주소서……”(79쪽.)라며 기도한다. 그는 아
버지로부터 가장 총애 받는 아들이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자라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후, 그는 서자의 한을 풀기
위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다. 라깁은 아버지의 상징적 힘을 구현하는 이러한 시니피앙을 ‘부성’이라고 명명한
다.” 이광재, 『함정임, 진영의 부성 창조 비교연구』,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제
26집, 2007, 236쪽.

21) <일이승>에 대해 김병민은 “정을진의 들뜬 환상과 허영심을 신랄하게 야유, 풍자하
면서 이런 인간은 비단 자기의 뜻을 실현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수치스러운 비극을
면할 수 없음을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병민, 앞의 책, 140쪽.) 성현
자는 일이승을 서사의 중심인물로 보면서 “자주독립의 쟁취는 역사 관점의 올바른
정립과 연구에서 비롯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투영인 일이승이라는 인물을 허구화한
것”이라 본다. 성현자, 『허구적 인물의 역사적 해석(II)-신채호의 <백세노승의 미인
담>, <일이승>, <꿈하늘>을 중심으로』,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13, 1996, 12,
324~325쪽.

22) 궁예, 을진 외에 동명왕도 서자이다. “고구려 시조 추모(鄒牟)는 북부여왕 해모수(北
扶餘王 解慕漱)의 서자라” <류화전>, 91쪽.

“철산 정시라 하면 곧 병자 호란의 명장 정 봉수의 후손으로 평안 남북도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유명한 명문인 줄은 대사로 알으시리다. 그런데 을진은 철산 정모(鄭某)의 서자올시다. 서자이지만 부친 재세하실 적에 가장 총애를 받던 아들이올시다. 또한 부친의 상사를 당하여 성복할새 적형 적제(嫡兄嫡弟)들은 다 당상(堂上)에서 우는데 을진은 당하(堂下)로 쫓아 내리거늘 <…> 오나 철산 정가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내 앞에 잡아다가 끓리어 불 날이 있겠지. 그렇지 못 하면 내 한몸의 고기 값으로 너희들의 전문을 다 멸망시킬 수 있지 하고 나왔습시다.”(80쪽.)

봉건사회의 가족 구성원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인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받는다. 특히 서자라는 출생 콤플렉스를 가진 을진의 경우,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태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곧 을진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을진의 결핍이 발생한다. 이곳이 그의 자아가 고착되고 끝없는 욕망 추구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은 바로 그의 부성 콤플렉스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다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버지가 필요하다.

을진은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분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자 한다.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했듯이 을진은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아버지, 즉 스승들을 찾아 헤맨다. 그가 만나는 세 명의 스승들은 곧 ‘환유’로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³⁾ 을진은 스승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기며 이들을 따르지만 이들 역시 을진이 왕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23)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대상, 즉 대체가 가능하리라 믿는 단계, 이것이 압축이요, 은유이다. 그러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또 다음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는 전치, 이것이 환유이다.” 자크 라캉, 앞의 책, 19쪽.

것만 확인시켜 줄 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을진의 첫 번째 스승인 함허는 을진의 허황한 생각을 듣고는 꾸지람을 주지도 깨달음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저 질문만을 던지면서 을진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한계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할 뿐이다.

“너의 나이 몇 살이나?” 을진이

“열여섯이올시다.” 함허가 다시 엄숙한 말로

“네가 임금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 대 을진이

“백성의 우에 앉아 백성을 살리고 죽이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칭호인 줄 압니다.” 함허가

“을진아, 네가 어떤 사람이 임금이 되는 줄 아느냐?” 을진이

“만인을 거느릴 지혜와 만인을 누를 용맹이 있으면 임금질 할 만 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함허가

“그러면 을진이 너는 그런 지혜와 용맹이 있느냐?”

을진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니

“을진이 제가 지혜와 용맹이 있어 임금되려 함이 아니오라 다만 아까 아뢰인 말씀과 같이 을진의 품은 한을 풀려 생각한즉 평안 감사가 되어도 못 될 일이요, 령의정이 되어도 못 될 일이요, 오직 임금이나 되여야 이에 국법을 고쳐 적서의 명분을 타파하여 을진도 아버를 아비라 할 수 있삽기에 그런 생각을 함이오이다.”<...>

“가서 말 없이 기다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많이 생각하여 보마.”(80~81쪽.)

함허의 질문에도 을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울분에 사로잡혀 왕이 되겠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함허는 이러한 을진에게 일이승을 소개해 주면서 “네가 저 손님을 따라 가면 너의 뜻을 이룰 날이 있으리라.”(81쪽.)며 그를 떠나보낸다.

일이승은 귀가 하나뿐인 중이다. 그는 함허와 마찬가지로 을진에게 특별

한 가르침을 주지도 않고 꾸지람을 주지도 않는다. 그저 을진에게 붓짐을 달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면서 풍수를 보고, 흥이 나면 가끔 사론(史論)을 펼칠 뿐이다. 그러나 일이승은 “문자(文字)에 홀리지 아니한 비밀인 일을 알아 내지 못 하면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 못 할지니라.”(83쪽.)며 궁예나 최영 등, 실패자의 삶을 재조명할 줄 아는 진보적인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다. 을진은 그러한 일이승과 십 년을 함께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과대망상이 더욱 심해져 자신을 왕 건이나 이성계에 견주고 일이승을 도선(풍수에 능했던 신라 말 고려 초의 중)이나 무학(풍수에 능했던 고려 말 이조 초의 중)으로 치부하며 일이승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분노한다.

“신라 태종의 밑에는 김 유신 뿐 아니라 다미(多美)도 있었고 김 알천(金闕川)도 있었지. 한 소령 밑에는 제갈 공명 뿐 아니라 관우 장비도 있었고 조 자룡도 있었지. 나도 어찌하여 일이승만 믿고 있노. 아서라, 그만 두어라, 내가 저 놈의 중을 따라 다닌 지 십 년이 아닌가. 십 년 동안 저 놈이 김 유신이나 제갈 공명과 같이 획책하여 어느 골 하나도 차지하여 보지 못 하였구나.”(86쪽.)

을진은 과거의 상처를 건어내지 못하고 과대망상에 빠짐으로써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부정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는 십 년 세월 동안 자기 스스로를 욕망의 노예로 화석화시켜 갔던 것이다. 을진에게 변화가 없는 한, 일이승 역시 그에 대한 기대를 거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이승도 함허가 그랬던 것처럼 을진을 홍경래에게 맡기고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

홍경래에게 맡겨진 을진은 전장에 참여하지만 겁에 질려 운산(雲山)과 초목(草木)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일을 그르친다. 이에 홍경래는 을진의 귀

를 베는 것으로 그를 응징한다. 그럼에도 을진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차라 리 나 홀로 어느 산중 소옥에서 문 닫고 정대왕이라 자칭하다가 말년에 병들어 죽을 때에 짐(朕)이 붕(崩)하신다 태자야 즉위하라 부르짖고 죽었 음이 좋았을 것을...”(90쪽.)이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 말은 들고 노한 홍경래는 결국 그의 목을 베고 만다. 을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죽음 으로써 끝나는 것이다.

을진은 권력 획득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설 사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욕망은 또 다른 결핍을 느끼며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게 될 것임을 궁예의 예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을 뿐이다. 결핍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는 일시적인 욕 망의 충족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고착된 지점을 찾아 자기 와의 화해를 통해서만이 치유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궁예와 을진은 모두 권력을 추구한다.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은 결 국 부성 콤플렉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가 부성의 자리에 오 름으로써 결핍을 보상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부성 결핍은 그 들에게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낳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 그들 스스 로를 속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욕망의 고리를 인식 하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살펴보면 궁예와 을진은 모두 부성 중심의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유교를 거부하였다. 이는 유교가 그 참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흐르는 것 을 비판하였던 신채호의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궁예와 을진의 비판은 사적인 복수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유교의 폐단을 근본적으 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강력한 부성을 획득하려 하며 유교 질서보다 더한 폭력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궁예와 을진이 겪는 부성 결핍의 세계는 아버지를 일찍 여윈 신채

호의 유년기를 상기시킨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을진의 나이이다. 을진은 열여섯의 나이에 절로 들어가 왕 되기를 꿈꾼다. 을진과 같은 열여섯의 나이에 신채호는 향리에서 풍양 조 씨와 결혼한다. 아버지의 세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신채호에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성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신채호는 더더욱 강한 부성성을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상을 찾아 헤매는 을진처럼 신채호는 여러 스승들을 만나면서 학문의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스승들을 통해 그 역시 부성 찾기와 망실을 거듭하며,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 갔던 것은 아닐까.

살펴본 바대로 신채호에게 부성부재의 문제는 소설 창작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늘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망명 생활로, 그리고 여순 감옥에서 안타깝게 순국함으로써 그는 일찍 가족 곁을 떠나고 만다. 결국 두 아들에게도 자신처럼 부성 부재의 가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 구원과 파멸의 세계로 구성되는 여성

신채호 소설에서 여성이 등장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을지문덕, 이순신과 같은 구국의 영웅으로 형상화된 인물도 없다.²⁴⁾ 이는 일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형상화할 만한 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신채호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 역시 반영되었기 때문

24) 소설 총 15편 중에서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예는 <류화전>, <일목대왕의 철추>, <백세노승의 미인담>, <리팔> 네 작품밖에 없다. 이 중,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류화전>이 유일하다.

으로 보인다.²⁵⁾ 이 중, 인물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류화전>의 류화와 <백세노승의 미인담>의 엽분은 둘 다 고아로 등장하고 있다.

신채호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고아(류화, 엽분)이거나 과부들(류화, 왕후 강 씨, 리귀의 딸)로서 봉건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떠나 류화나 엽분 개개인들은 망명 이후 소설에 형상화돼 있던 남성 인물들과는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없는 인물들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남성을 살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며 동시에 과멸시킬 수도 있는 이중적인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어 이들의 성격을 단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류화전>²⁶⁾은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어머니, 류화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류화는 신화에서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었던 것과는 달리 송화강 부근의 장대길의 딸로 등장한다. 또한 빛을 받아 알을 낳는 대신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는다는 점에서도 신화와 차이가 있다. 그녀는 해모수의 후궁이 될 뻔했으나 당시 왕실에서는 호족 귀족과 결혼하게 돼 있으므로

25) 신채호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조 씨가 우유를 잘 못 먹여 아들이 죽자 그녀와 이혼한다. 또한 질녀가 자기 허락 없이 시집을 갔다고 자신의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자르고 질녀와 인연을 끊기도 하였다. (『전집』 9권 참조.) 이런 일화 등에서 신채호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형이 요절한 이후, 질녀를 데리고 살았으며 망명할 당시에는 질녀를 지인에게 맡긴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형수도 집안에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자 형제도 없었기 때문에 단재의 여성관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그러나 신채호의 글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의문이다. 최옥산에 의하면 어머니는 신채호가 황성신문사에 다니던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최옥산, 앞의 논문, 13쪽.) 차후, 단재의 어머니와 가족관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 <류화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민족의식, 유구한 역사성을 밝히려는 작품으로 본 연구는 김병민, 앞의 책, 이영신, 앞의 논문, 최수정, 「신채호 서사문학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이 있다. 김현주는 탈성화된 성모상(聖母像)을 구현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 기획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현주, 「신채호 소설의 근대국민국가 기획에 관한 연구 -<류화전>과 <익모초>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57집, 2010, 12.

해모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또한 부모 허락 없이 사통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 즉 그녀는 부성의 세계에서 버림받은 여성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동명왕 역시 태생적으로 부성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부성의 세계에서 버림받다는 것은 곧 여성에게는 개인적, 사회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신성한 의무가 주어졌으니, 바로 “건국 대업”을 할 인물을 잘 길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류화의 운명을 일러주는 이는 백악도인(白岳道人)이다.

“소저는 본래 전세 선아(前世仙娥)로 동부여국에서 랑연을 맺고 장래 일국 제왕의 태상후(太上后)가 될 것이요, 소저의 배 가운데 창업할 제왕을 배였으니 로부의 말을 귀이 알지 말고 비록 앞으로 천만 황액이 있더라도 별로 랑패됨이 없으리니 귀공자를 잘 양육하여 건국 대업을 이루고 최귀 행복을 안형(安亨)하라.”(98쪽.)

백악도인은 류화에게 어머니로서의 삶을 일러주고 있다. 류화는 사람의 딸이자 전세선아(前世仙娥)로서 귀공자를 잘 양육해야 할 임무를 받은 신성한 존재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에 류화는 홀로 아들을 길러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이제 그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백악도인이 일러 주는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기 이전에 아이에게 부성 결핍을 상쇄 시켜줄 만한 모성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모성과 땅, 고향은 시원적인 공간으로서 생명의 탄생과 귀의처”²⁸⁾이다. 이러한 모성을 획득하는 것만이 류화를 살게 하는 힘이며, 그녀 자신과 아들의 부성 결핍을

27) 류화의 성모적 이미지는 김현주(2010), 위의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28) 강찬모, 『포식 조명희 시에 나타난 고아의식 소고』,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제72호, 2006, 4, 398쪽.

동시에 상쇄 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류화에게 아들은 그녀 삶의 전부이자 자신의 인생을 보상해 줄 상징체이다. 그녀가 금와왕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 역시 모성이라는 이름 앞에서 필연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며 여성으로서 짊어질 수도 있는 비난과 과오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서사의 구성 또한 ‘고구려 건국의 략사와 시조 주몽의 위대한 사업-류화 성모 탄생 추모 성제하고 금와왕이 폐 후궁 안치 별원하다-류화 성모가 별원에서 성제를 탄생하고 백악 도인이 류화 부인에게 비기(秘機)를 말한다’로 류화의 삶은 아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 이러한 류화의 예처럼 여성에게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 지아비의 부재 등, 부성적 세계의 결핍을 보상해 줄 상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성이 부재한 가정에서 여성은 아들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한편, 부성성을 함께 지닌 강인한 어머니가 되어 가는 것이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이러한 집착은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될 수 있다. 아들은 부성 결핍을 모성에서 충족하려 한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성장 이후의 여성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즉 부성 부재로 인해 정상적인 상상계에 진입하지 못한 남성들은 어머니와의 동일시가 가능했던 상상계에 머무르려는 퇴행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어머니 외의 여성들에게도 투사될 수 있는 것이다.²⁹⁾

29) 라캉에 의하면 주체는 거울 단계에서 어머니의 통일적 형태를 봄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모체와 동일한 모습으로 인식하게 된다. 모체와의 이러한 동일시 현상은 타자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된다. 이때 타자는 욕망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주체를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타자는 주체가 환원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이므로 동일시가 깨짐과 동시에 주체는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체는 타자로부터 소외를 겪게 되고 결코 타자가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대타자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주체가 추구하는 것은 상상계의 이상적 자아로 욕망은 충족되

신채호 소설에서 모성은 자아분열을 겪고 있는 남성 인물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받아주는 마지막 보류처, 구원의 상징체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류화가 성모 이미지로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해모수와 금와왕을 단순에 현혹시킬 만큼 빼어난 미모를 지닌 인물로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해모수왕이 한 번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가만히 생각하니 내 일국 부왕으로 후궁에 미색을 충만하였으나 저런 경국 지색은 처음 봄이다. <…> 류화를 붙들어 운우몽(雲雨夢)을 이루니 견권함이 비할 데 없다.(92쪽.) 익일 금와왕이 후궁에 들어 가 류화를 볼새 <…> 인간 사람이 아니라 왕이 한 번 보고 마음에 놀라 말하기를 “짐이 일국 미인을 다 본가 했더니 어디서 저런 선아가 이 세상에 있었던가.” 하여 만심 환희하여 공순히 답례하고 수백 궁녀로 궁중 악을 아뢰며 크게 잔치하고 즐기더니 날이 저물매 왕이 류화와 동궁에 나아가 취침할새(101쪽.) “짐이 그 위인을 미워함이 아니라 그 일이 괴연함을 근심함이니 구태여 생명을 해할 바 있으리요.”(129쪽.)

류화는 ‘숙덕과 자색’(99쪽.)을 모두 갖춘 인물로서 그녀의 모성성과 성적인 여성성은 남성들의 상상계적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류화의 이러한 모습은 금와왕을 흡족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결국 서사에서는 “자고 이래로 왕가의 중첩 간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국가의 흥망 성쇠에 관계가 절대한 것이다.”(121쪽.)라며 여성이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임을 경계한다.³⁰⁾

지만 결여를 남긴다. 주체는 욕망 충족 뒤 결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분열한다. 이러한 분열은 계속해서 주체 구성을 시도하게 된다. 길경숙, 『박상룡 소설 정신분석학적 읽기 -‘분열’과 ‘결핍 지향’ 의식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5, 28, 82쪽 참조.

30) 이러한 태도는 <리팔>에서도 나타난다. 광해는 리귀의 딸 때문에 몰락한다. “리 귀

남성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백세노승의 미인담>의 엽분을 형상화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³¹⁾ 엽분은 고아이다. 어느 날 노승의 아버지가 어미 송장에 매달려 우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엽분이다.

“로승의 아버지가 고려의 평장사로 잇섯습니다. 평장사는 지금의 령의정입니다. 어니 해 흉년에 로승의 아버지가 길에서 었던 여자가 죽어 잡버졌는데 어린 계집아이가 그 어미 송장에 매달리어 우는 것을 보고 불상히 녀키여 그 송장을 무더주고 그 계집아이를 달니어다가 길으며 얼골이 절묘함으로 엽분이라 일흠을 지엇습니다. 아버가 엽분의 령리함을 사랑하야 글을 가리쳐 로승과

의 딸 하나가 김 자겸의 아우 김 자겸(金自兼)의 안해가 되었다가 일찍 과부가 되어 청춘의 공방을 견디지 못 하여 당시 소위 량반 과부의 수절을 버리고 불당에 가서 아미타불도 찾으며, 시정(市井)에도 출입하므로 광해가 그 소문을 듣고 금군(禁軍)을 명하여 잡아다가 심문하더니 김 과부가 궁중에 들어 와 시공(侍供)함을 원하거늘 광해가 그 꽃 같은 얼굴에 홀리어 《그리 하라》고 허하니 아! 뉘 알았으랴? 일 개 과부의 입궁에 광해 대왕의 십륙년 왕위와 대북당 책사, 지사(智士)의 수년 닦아 온 기초가 일조에 전복될 줄을” <리괄>, 129쪽.

- 31)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엽분을 자주의식,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민중영웅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병민, 앞의 책. 성현자, 『허구적 인물의 역사적 해석(II)』, 앞의 논문. 양진오, 앞의 논문.) 이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단재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주체적이고 저항적인 중심인물로 삼은 것은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도 분발하여 국권회복 항쟁의 대열에 앞장서는 민중적 영웅인 여영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역사인식을 드러낸다.”고 밝힌 논문도 있다. (김교봉·설성경, 『역사전기체 소설의 특성』, 『근대전환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1, 101쪽.) 최원식도 이 소설이 “두 고려 여성의 뛰어난 형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페미니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3, 115쪽 참조.) 이와 달리 김현주는 “엽분이 현실 개혁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발전하지 못한 점에서 민중영웅의 전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엽분의 죽음은 신채호의 의도된 서사전략으로서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기보다는 민중 개인 스스로의 주체 찾기 방식을 고무하는 메시지이다. 이는 권위와 완결성을 거부하는 카니발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하였다. 김현주,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어문학회, 『어문학』 제116집, 2012, 6, 301~302쪽 참조.

함씨 한 등장 미테서 글을 읽었습니다.”(572쪽.)

엽분은 얼굴이 절묘하므로 노승의 아버가 지어준 이름이다. 그녀는 류화와 마찬가지로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하다. 노승의 아버지는 그러한 엽분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노승과 함께 공부를 하게 한다. 덕분에 그녀는 역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자의식의 생각을 피력할 정도로 적극적이며 자의식이 강한 여성으로 성장한다. 그녀는 “녀진(女眞)은 우리나라를 복종하는 종ियो, 계단(契丹)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도적인대 도적을 치지 안코 종을 친 것이 무삼 영웅임닛가?”(572쪽.)라며 윤관(尹瓘)을 비판하기도 하고 몽고로부터 고려를 구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녀는 몽고군은 물이 익숙지 않으니 우선 서울을 강화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며 첫째, 노예라도 공만 세우면 높은 벼슬을 줄 것, 둘째, 귀인의 토지를 뺏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 셋째, 해군을 부흥시킬 것, 넷째, 북방 경영에 힘쓸 것 등을 제시한다. 이에 노승의 아버가 “오늘 조정 안에 너의 말한 정책을 실행할 만한 이가 누구냐? 행할 수 업는 말이야 쓸대 잇느냐?” 라고 묻자 엽분은 “손네에게 국정을 맥기십시오.”(574쪽.)라고 한다.

엽분은 당돌하게 국정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궁예나 을진처럼 엽분 역시 권력에 대한 욕망이 큰 인물이며 자의식 또한 강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신격화하거나 개인적인 울분 때문에 폭력적이고 도착적인 모습을 보이던 남성 고아들과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엽분의 이러한 강한 자의식은 지식의 습득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출생 콤플렉스에서 온 것이기도 하다. 고아인 엽분이 자신의 출생과 신분에

서 오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은 학문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자신을 구해준 노승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국정을 맡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신분적인 억압,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 등을 상쇄시켜 줄 만한 획기적인 일이긴 하다. 그러나 국정을 맡기라는 말은 하였지만 그녀 역시 이 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엽분은 이후 권력에 대한 무모한 도전도, 사회 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녀가 실제로 국정을 맡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오히려 출생 콤플렉스와 배움을 통해 길러진 강한 자의식,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서 오는 자기모순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엽분의 강한 자의식은 그녀의 죽음에서 극대화된다. 그녀는 노승을 구하고 죽는다. 노승은 몽고군에게 빼긴 미인 아내를 찾으러 가산까지 탕진해 가며 북경으로 온 터였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엽분은 “소녀는 얼굴이나 몰라보게 되었지만, 아씨는 마음까지 몰으게 되었습니다.”(565쪽.)라며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이른다. 그러나 노승이 “황천으로 돌아갈지라도 아씨를 만나보고야 돌아가겠다.”(565쪽.)고 말하자 엽분은 “네가 무삼 산 아희냐?”(565쪽.)며 노승을 크게 꾸짖는다. 그러나 이후, 엽분은 아내 황씨와 차손다다를 죽인 노승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은 결국 자결하고 만다.

이렇게 엽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자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승의 말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엽분이를 서방님들은 이러케 죽었다고 충비(忠婢)로 아시리다. 안이올시다. 충비가 다 무엇입니까? 엽분의 눈에 내 나라의 님금도 없고 남의 나라의 황제도 업섯습니다. 하물며 상전이 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엽분이 누구를 위

하야 자살하였느냐? 이것은 로승이 잘 알습니다.(572쪽.) 엽분은 죽을 때까지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조를 지키려라고 처녀로 잇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내 서방될 산아회가 업고나 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 자살한 때의 심사도 로승이 압니다. 네가 무삼 산아회냐 당초에 너희 정실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억지로 서방이라 인정할 터인데 인제 와서 내가 저의 게실이 되겠느냐 하는 괴과한 심사에서 나온 사실입니다.”(574~575쪽.)

노승은 엽분이 충비(忠婢)가 아니라 한다. 엽분의 눈은 어느 나라 임금도 개의치 않을 만큼 높으며, 정조를 지킨 것도 자기 눈에 차는 서방이 없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노승의 말로 미루어 보자면 그녀는 봉건적 가치의 실현이나 민족의식의 구현 이전에, 자의식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강한 자의식은 곧 엽분의 깊은 콤플렉스와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만큼 자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비인 그녀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이러한 자의식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 이미 자신이 모시던 아씨도 죽었으며, 차손다다도 죽었다. 그녀 역시 차손다다의 집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긴 하였지만 그들을 죽이도록 노승을 도와준 것을 보면 그 삶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³²⁾ 이제 타국에서 홀로 남은 엽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승의 아내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미인 아내를 쫓아 북경까지 온 노승, 욕정에 눈이 멀어 현실인식, 시대의식이 부재한 노승, 그리고 절투와 분노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노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자신의

32) 엽분이 안락하게 살았다는 것은 노승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홍 남자나 여자나 잘 먹고 잘 차리면 아조 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어 보니 다른 여자가 아니라 로승의 집에서 부리던 녀종입니다. <…> 황씨가 곳 당시에 황제의 충신으로 유명한 몽고장수 차손다다의 부인이 되야 고국생각을 니줄만치 안락에 빠이지고 년종은 그 집의 비자로 또한 영화를 누리는 줄을 재세히 알았습니다.” <백세노승의 미인담>, 564~565쪽.

삶을 지탱하던 자의식을 내려놓는 일과 같은 것이다. 이는 곧 정신적인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엽분은 차라리 세상을 버림으로써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고고한 고립의식, 자의식을 지킨 것이다.

살펴본 바대로 엽분은 자의식이 강한 고아이다. 그러나 엽분이 단순히 권력욕에 눈이 먼 인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의식에만 갇혀있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남다른 사회적 안목, 그리고 노승의 무지를 준엄하게 꾸짖다가도 노승을 포용하는 대범함 등은 그녀의 자의식이 사회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고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엽분의 삶은 자의식의 과잉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자아와 현실 비판적인 지성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자아 사이, 애매한 경계지점에서 끝을 맺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여성영웅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남성들의 이중적인 시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³³⁾

로승의 아버지는 엽분을 항상 녀개소문(女蓋蘇文)이라 일컫어야 엽분이 만일 남의 집이나 나라를 맞으면 아조 흥망의 판단을 낼 계집아이라 하시며 로승의 어미는 더욱 실여야 어대서 온 뻘인지도 몰으며 엇지 나의 아들과 짝을 삼으리오 하야 괴쓰고 반대하며 로승아버의 친구들도 그 말을 듯고는 놀래여(574쪽.)

노승의 아버지는 그녀를 며느리로 삼으려 할 정도로 좋아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흥망을 판단 낼 정도로 위험한 인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녀는 부성의 세계 안에서 집안에 기쁨을 주는 총명한 여성으로 머무를

33) 최수정은 “남성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버려야 할 사적 영역에 여성이 갇혀 있으며, 여성이 아름다울 때 그 미혹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는 성담론적 형상화에 의해 예쁜이의 여성이미지는 이중적이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세계의 붕괴 인식과 재건의 희망을 여성인물을 통해 보여준다.”고 하였다. 최수정, 앞의 논문, 77쪽.

때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며, 남성적인 세계를 뛰어넘을 시에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류화처럼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성스러운 어머니가 될 때, 그리고 엽분처럼 곤란에 빠진 남성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위치에 머무를 때 여성은 남성들의 영원한 안식처, 구원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서사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짐이 또한 아직까지 의심이 없지 아니 하여 후궁의 그 위인과 용모 숙덕을 사랑함이 많았고 그 배운 레절과 학식이 진실로 녀중 군자의 본색이 있음을 믿었더니 금일 와서 보건대 그 범행함을 발명할 바 없는지라 이를 어찌 하여야 온당할가.” 하며 근심하는 빛이 룡안에 나타나는지라 여쭙기를 <…> “첩의 생각에는 서부 살이를 불러 먼저 백악 도인의 진위와 후궁 천거한 경과를 한 번 물어 보고 차차 상의하여 처치함이 좋을가 하나이다.” 왕이 황연히 깨닫고 소후의 말이 극히 유리하다 하고 이에 정전에 돌아 가 제신을 명하여 서부 살이를 명소하니라. <류화전>, 116쪽.

“대왕 『아이구. 나의 야유타……』” 하며 왕후의 허리를 안는다. 하로 동안에 무고히 오륙백 명 사람의 목을 베이던 때에 그 만흔 사람의 울음소리가 쌓이 써저도 눈도 깜짝 안이하던 악마 갓흔 대왕이 왕후의 땀 방울 눈물에 마음이 절이어 그 모든 경계에 고개를 숙이니 여자의 매력(魅力)이나? 남자의 약점이나? 나 한아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일목대왕도 할 일없이 그 사랑하는 왕후 강씨 압해는 무릅을 꿇었다. <일목대왕의 철추>, 601쪽.

“칼을 빼여 그년을 죽이라 하나 야 미인이란 것이 참 요물입시다. 차손다가 소리도 업시 죽었지만 그 계집이 곤하게 든 잠결에도 무엇이 감촉이 되얏는지 깜짝 놀래여 일어 안는데 촉불에 비추는 달 갓흔 얼굴 옥 갓흔 살빛 형용할 수 업시 괴묘한 눈땀씨가 사람의 정신을 홀이여” <백세 노승의 미인담>, 570쪽.³⁴⁾

34) <꿈하늘>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연출된다. 한놈은 풍신수길이가 미인으로 변하자 전의를 상실하고 만다. 미인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 최고 어려운 일로서 한놈은

류화의 문제로 고민하던 금와왕은 소후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하루에 수백 명을 죽이던 폭력적인 왕 궁예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왕후 강 씨의 말에 쉽게 감복하는 순한 왕으로 돌변하고 있다.³⁵⁾ 소후와 강 씨는 남성의 훌륭한 보조자이다. 이는 엽분이 노승에게 보여주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인물들은 남성을 고난에서 구해주는 구원의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을 마지막으로 받아주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여성들로서 남성들은 여성들의 지혜를 갈구하고, 이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다. 이는 곧 모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남성 인물들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여성들에게 투영하여 상상계로 퇴화됨으로써 소외의식과 결핍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성 인물들은 미색(美色)까지 갖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도 형상화된다. 노승은 자신을 배신한 미인 아내를 죽이는 순간에도 그 미모에 정신이 빼앗기기도 한다. 그러나 미색이 대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남성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그리고 엽분처럼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경우, 여성은 남성들의 세계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로 전략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때때로 남성 인물들의 상상계적 욕망을 충족해 줌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의 세계 안에서 재생을 꿈꿔야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욕망을 버린 다음에야 남나라에 다다를 수 있었다. “너눔이 곳 壬辰倭亂에 朝鮮을 드럽히랴던 日本關白 豊臣秀吉이라.” 하거늘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한눔이 었지 용서가 잇스리오. 두 눈에 쌍심지가 울으며 憤氣가 덩수박이를 쿵 질너 곳 한칼에 이눔을 고기장을 맨들리라 하야 힘쓴 건위치랴 한즉 豊臣秀吉이 썩 쳐다보며 땡그레 웃더니 그 怪惡한 얼굴은 어대 가고 一代美人이 되어 안것는대 쏫본 나뉘인 듯 물찬 제비인 듯 도다오는 半月인 듯 한눔이 그것을 보고 팔이 썰으르해지며 차마 치지 못하고 칼이 땅에 덜닝 내려지거늘 <꿈하늘>, 545쪽.

35) 이영신은 이러한 궁예의 태도에 대해 “궁예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는 부정적 인물이 아니라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며 아내를 나의 아유타라고 부르며 매우 고맙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상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영신, 앞의 논문, 64쪽.

살펴보면 류화는 남성들의 도움을 통해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녀에게는 백악도인과 금와왕이 있었다. 류화보다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엽분 역시도 노승의 아버지와 차손다다의 영향 하에 삶을 유지했다. 이들은 남성의 세계 안에서 갇혀있는 인물들로서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에 의해 여성은 어머니 같은 존재이자 요부 같은 존재, 즉 덕과 자색 사이를 넘나들면서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성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여성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서사가 미완으로 끝나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궁예는 이후, 왕후 강 씨와 그녀의 두 아들까지 죽이는 잔인함을 보여준다. 왕후의 충언에 순한 양으로 돌변했던 궁예는 충언 때문에 아내를 죽이기도 하는 도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노승 역시 미인 아내를 사랑해야 그토록 아내를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극단적인 복수극을 펼친다.

이처럼 남성들의 이중적인 시각은 여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 기복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폭력성이 신채호 소설에서 유독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남성 인물들이 모성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궁예나 노승의 태도는 곧 어머니와 일체를 이루는 상상계적 욕망을 또 다른 여성 인물들에게 투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류화와 엽분은 모두 고아로서 남성 고아 인물들의 아니마(anima)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등장인물들 중 그 누구도 이상적인 사랑을 완성하는 이가 없다. 노승은 아내와 엽분에게 집착하며 그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차손다다에게 빼앗기고 엽분은 죽어버림으로써 그녀들과 일체감을 이루지 못한다. 그녀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결국 노승의 욕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통해 상상계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지만 “어머니의 세계조차 허구로 나타나는 텅 비어있는 세계임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아는 거울 단계 이전의 파편화된 자아의식을 그대로 지니게 되는 것이다.”³⁶⁾ 즉 남성 인물들은 이러한 욕망이 허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여전히 분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살펴본 바대로 여성들은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닌,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구원과 파멸의 이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이는 자기 파괴적인 남성들의 상상계적 욕망이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신채호 소설에 형상화돼 있는 고아인물들의 삶의 태도에 주목하고, 이들의 욕망이 고착화되는 지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의 정신적인 상처와 이것이 전도되어 나타나는 자기 분열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결핍된 부분들을 보상받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안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결핍의 인물들로 남는다.

궁예와 을진은 권력에 집착함으로써 부성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핍에 대한 보상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폭력적이고 망상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등, 극단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부성 결핍으로 인해 상징계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이루는 상상계적 상태에 고착화된 인물들이다. 류화와 엽분은 이러한 남성 인물들의 왜곡된 상상계적 욕망이 투영된, 남성적 시각에

36) 길경숙, 앞의 논문, 32쪽.

의해 구성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자의식의 과잉, 나르시시즘(narcissism)적인 태도들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기제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고아 인물은 그 형상화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들 모두 지식인들이다. 류화나 궁예는 물론이고 비천한 신분이었던 엽분의 경우도 배움을 통해 현실인식을 키우게 된다. 둘째, 고아들은 현실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강한 자의식을 가진 인물들이다. 셋째, 이들은 고아, 서자, 과부 등, 사회의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 넷째, 엽분과 을진의 경우에서 보듯이 신분제를 비판하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섯째, 이들은 집을 떠나 유랑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집을 떠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있으나 충족감을 느낄 수 없는 자신의 집을 떠나 스스로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보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섯째, 권력에 대한 욕망은 있어도 물질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곱째, 부성(父性)의 문제가 부각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몰락한 가문의 망명 지식인인 신채호의 현실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이다. 신채호는 불운한 가족사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권 상실로 사회적 고아로 살아갔다. 이로 미루어 보면 고아인물 형상화는 곧 작가의 현실에서 배어나온,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자기 삶의 문제가 각색돼 나온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아의식은 결국 신채호에게 국가망실로 전이되고, 자의식은 역사에 대한 탐구로, 영웅 형상화는 아버지를 일찍 여윈 자의 부성 찾기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에게 국가 세우기는 이상적인 집을 건설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서, 신채호는 글쓰기를 통해 고통의 개인사를 대의적인 역사의 장으로 승화시켜 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꿈하늘>에 등장하는 한놈은 자기 부정, 죽음의식을 통해 고아의식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기와의 화해

이후,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더 이상 고아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신채호 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외로움, 처연함, 눈물의 정서를 강인한 지사적 태도로 과약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 겪는 신채호의 갈등과 반목 등을 외면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본 논의를 통해 신채호에게 글쓰기는 유년기 상처를 치유하는 한 과정이었으며 이는 자아의식, 세계인식을 확장해 가는 적극적인 삶의 추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서사들이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채호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결핍과 외로움, 상실, 그리고 그만큼의 자아에 대한 믿음과 현실인식 사이를 오가며 독특한 문학세계를 창조해 갔던 것이다. 고아 인물들을 형상화한 것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식민지 망명 지식인의 자기 치유 방식이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신채호 소설 창작의 동인을 밝히고, 그의 문학 행보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이는 ‘민족주의자’라는 수식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신채호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신채호의 소설에서 자의식 소설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한국의 자의식 소설의 사상적 바탕은 선비 사상(정신)에 있다.”³⁷⁾라는 말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작가의 생애와 작품과의 연관성을 과도하게 연결 지은 점은 앞으로 신채호 생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37) 최상윤, 앞의 논문, 21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상·하, 형설출판사, 1995.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1~10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사연구소, 2008.

2. 논문

- 강찬모, 『포석 조명희 시에 나타난 고아의식 소고』,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제72호, 2006, 4, p.398.
 길경숙, 『박상룡 소설 정신분석학적 읽기 -‘분열’과 ‘결핍 지향’ 의식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5, p.28, 32, 82.
 김현주, 『단재 신채호 소설 연구 -근대·탈근대 이행 양상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
 학위 논문, 2010.
 ———,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어문학회, 『어문학』 제116집,
 2012, 6, pp.301~302.
 ———,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 -아나키즘 사상의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105집, 2009, 9.
 ———, 『신채호 소설의 근대국민국가 기획에 관한 연구 -<류화전>과 <익모초>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57집, 2010, 12.
 김주현, 『신채호 문학 연구』, 수원대 국어국문학회, 『기전어문학』 10·11, 1996.
 김희주, 『신채호 서사의 희극성 연구 -<일목대왕의 鐵椎>,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 연구』 제44호, 2010, 8.
 박 신,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분석심리학회, 『심성연구』 19, 2004, p.40, 58.
 성현자, 『역사적 인물의 허구적 서사구조(1) -신채호의 <일목대왕의 철퇴>, <박상
 회>, <이팔>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 21, 1996, 12.
 ———, 『허구적 인물의 역사적 해석(Ⅱ)-신채호의 <백세노승의 미인담>, <일이승>,
 <꿈하늘>을 중심으로』,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13, 1996, 12, pp.32
 4~325.
 양진오, 『영웅의 호출과 민족의 상상 -망명 이후 신채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
 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38호, 2008, 8.

- 오형엽, 『부성과 모성, 육체와 정신의 원형적 탐구 -서정주의 <자화상>을 중심으로-』, 문학과 교육연구회, 『문학과 교육』 15, 2001, 3.
- 이광재, 『함정임, 진임의 부성 창조 비교연구』,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제26집, 2007, p.236.
- 이영신, 『단재 신채호의 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9, p.64.
- 천연희, 『강경애와 이디스 워튼의 고아의식 비교 연구』, 세계문학비교학회, 『세계문학 비교연구』 11, 2004, 10.
- 천혜숙, 『‘父性 不在’의 신화학과 母性신앙의 문제』,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제15호, 2002, 12.
- 최명표, 『이태준의 소년소설 연구』, 한국아동문학학회,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4호, 2008, 5.
- 최상운, 『한국의 자의식 소설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1989, p.21, 114.
- 최수정, 『신채호 서사문학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 p.77.
- 최옥산,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pp.11~13.
- 한승옥, 『<무정>에 나타난 ‘친밀감의 거부’ 방어기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 연구』 제35호, 2007, p.106.

3. 단행본

- 김교봉 · 설성경, 『역사전기체소설의 특성』, 『근대전환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1, p.101.
- 김병민, 『신채호 문학연구』, 아침, 1989, pp.137~138, p.174.
- 김부식, 『삼국사기』하,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2009, p.484.
- 멜컴 보위, 『라캉』, 이종인 역, 시공사, 1999, pp.92~95, 160~165.
- 박찬부, 『기호, 주체, 욕망』, 창비, 2007.
- 신구 가르시제, 『라캉의 정신분석』, 김병준 역, 은행나무, 2007.
- 신용하, 『증보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나남출판, 2004, p.17.
-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선 역, 문예출판사, 1994.
-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3.
- 임진수, 『상징계-실재계-상상계』, 파워북, 2012.
- 자크 라캉, 『욕망 이론』, 권택영 역음, 문예출판사, 1994, pp.15~19.
-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3, p.115.

Abstract

Study on the Orphan Characters through the Novel by Danjae, Shin Chaeho

Kim, Hyun-ju

This thesis has surveyed on the spiritual injuries of the orphan characters that are embodied in the novel by Shin Chaeho and their self-disruptive and defensive attitude that are generated by the transfer of those injuries. These characters live to pursue new hopes continuously in order to overcome the complex formed unconsciously and to be compensated for the deficient parts. The self-disruptiveness, the excessive sense of identity and the narcissistic attitude that these characters show can be seen as the psychological defense mechanism that show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omplex.

Gungye and Euljin has attempted to overcome the fatherhood complex by adhering to the authority. But, when the expectations for compensations are not satisfied, they showed extreme anxiety symptoms such as showing the violent and delusion-captured attitude. They are the characters that are fixed in the imaginary world that is equated with the mother due to the lack of fatherhood. Ryuwha and Yeopbun are the characters where this distorted desire of man characters are reflected and are embodied as the beings of salvation and destruction.

The reality that these orphans face is very similar in much part to the reality that Shin Chaeho faced. Where, he had to go through unfortunate family history and after losing national sovereignty, live as a social orphan. The embodiment of the orphan characters is that of the life of the author was dramatized and was the self-healing method of an exiled intellect from the colony who could never been consoled anywhere else.

Key words : orphan, fatherhood complex, pursuit of authority, desire, sense

of identity, salvation and destruction. dual view

김현주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책 객원 교수

주소 : 경북 영천시 아사동 청구아파트 105동 1802호

전화번호 : 010-8530-7556

전자우편 : badalove2001@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